

#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의 통치술 (강희, 옹정, 건륭의 강옹건 성세시대)

양재현 (梁在賢)<sup>1)</sup>

진나라 진시황제 221 BC 부터 청나라 선통제 1912년까지의 2133년 기간의 중국 역사에서 청나라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시대 (간단히 강옹건 시대)의 1661~1796 년의 135년이 가장 안정되고 융성했던 태평세대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 외에도 한 무제(漢武帝 劉徹 생몰 156~87 BC; 재위 141~87 BC). 당 태종(唐太宗 李世民 생몰 598~649; 재임 627~649)의 정관의 치(貞觀之治), 당 현종(唐玄宗 李隆基 생몰 685~762; 재위 712~756)의 개원의 치(開元之治 713~741), 명 성조(明成祖 永樂帝 생몰 1360~1424; 재위 1402~1424)의 시대도 융성한 시대였다.

강희제(康熙帝 생몰 1654~1722; 재위 1661~1722), 옹정제(雍正帝 생몰 1678~1735; 재위 1722~1735), 건륭제(建隆帝 생몰 1711~1799; 재위 1735~1796)의 시대는 조선의 현종(재위 1659~1674), 숙종(재위 1674~1720), 경종(재위 1720~1724), 영조(재위 1724~1776), 정조(재위 1776~1800)의 시대와 겹친다.

강희제는 1661년(순치 18년)에 여덟 살의 어린 나이에 황제로 등극하여 1722년(강희 61년)까지 재위함으로써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재위한 황제이다. 1661~1667년 기간은 강희제가 너무 어려서 조모인 효장태황태후는 수렴청정을 하는 대신에 네 명의 보정대신 정황기의 소니(색니), 양황기의 오배, 정백기의 속사하(소극살합), 양황기의 어벌룬(알필룽)들에게 정책 최고 의결권을 주어 강희제를 보필하게 했다. 이들은 청나라 건국의 개국공신들이며 이 기간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다. 여기서 4명의 보정대신을 지명한 것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종친

1) 梁在賢 高等研究所 (Yang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귀족들이 보정대신을 감독하고 효장태황태후가 정책 최종의결권을 가지고 있었다. 1667년(강희 6년) 7월에 강희제는 조상의 예법에 따라 친정을 시작하였다. 1673년(강희 12년) 7월에 삼번에 지급할 군자금의 부족하는데다가 세력이 막강해진 삼번(三藩)의 모반이 염려되어 철번(徹藩)의 명을 내리자 그해 11월에 오삼계(吳三桂)는 반청복명(反淸復明)의 기치로 반란을 일으켰다. 번은 청나라의 특수 행정구역으로 주로 변방에 설치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삼번은 남명(南明)에 대비한 것으로 운남, 귀주 지역은 평서왕 오삼계, 광둥 지역은 평남왕 상가희(尙可喜), 복건 지역은 정남왕 경중명(耿仲明)이 관할하였다. 이들 세 왕들은 한족 출신으로 남명을 멸망시키고 중국 통일에 기여하면서 행정권,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가지면서 막강한 세력을 키워 나갔다. 이들은 멋대로 세금을 징수했고, 화폐도 주조했으며, 토지겸병과 인심매매도 서슴지 않았다. 삼번의 난은 8년 동안 지속되다가 1681년(강희 20년)에 돼서야 완전히 진압되었다. 이로 인해 강희제의 황권과 군 통수권은 더욱 강화되어 국가를 강력하고 안정하게 통치할 수 있었다. 1683년(강희 22년)에는 시랑을 복건수사제독으로 임명한 후 수군을 이끌고 대만 정벌에 나섰다. 그리고 대만에 대만부를 설치하고 복건에 예속시켰다.

지난 약 50년 동안 청군과 러시아군이 흑룡강 유역에서 국지적으로 싸우고 휴전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한 뒤에 1689년(강희 28년) 8월 27일에 강희제는 처숙(妻叔)인 색액도(索額圖, 1636~1703)를 흠차대신으로 임명하여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尼布楚條約)을 맺게 하였다. 이 조약은 그 당시로서는 국가 간의 평등한 위치에서 맺은 유럽식 조약이었다는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1721년(강희 60년)에는 티베트(西藏)를 청나라 영토에 정식으로 편입하였다. 청 태조 누르하치와 청 태종 홍타이지는 막남 몽고문제를 해결했고, 강희제는 막서와 막북 몽고문제를 해결했다.

61년의 재위기간 팔기군을 개편했고, 학문을 존중하여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토지개혁, 백성의 재산권을 보호, 조세 감면 등의 정책을 펴며 백성들의 편익과 민생을 위해 선정을 베풀었다. 1677년(강희 16년) 황하의 홍수 범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근보(靳輔)를 황하 치수공사 책임자(하

도총독)로 임명하여 1684년(강희 23년)에 치수 공사를 준공하였다. 이로써 황하의 범람과 가뭄의 피해를 줄여 백성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았다. 게다가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건전한 재정정책을 펴며 청나라의 재정을 튼튼히 하였다.

황후 4명을 포함해서 총 64명의 후비(后妃)와 잉첩(媵妾)을 거느려서 청 제국의 역대 황제 중 가장 많은 후궁을 둔 황제이며 아들 35명과 딸 20명을 두어 중국 역대 황제 중 가장 많은 자식들을 둔 황제이기도 하다. 너무 많은 아들들을 두어 황태자 책봉 문제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오랫동안 받아야만했다. 이 사건의 진상은 대충 아래와 같다. 강희제는 1675년(강희 14년)에 유일한 적자이며 적장자인 황2자 윤잉(胤禛; 1674~1725)을 황태자로 책봉했다가 윤잉의 비행으로 1709년(강희 48년)에 그를 폐위하였다가 다음해 다시 기회를 주기위해 황태자로 복위시켰다. 그런데 강희제가 1712년(강희 51년)에 여섯 번째 남순(南巡)을 떠난 사이에 윤잉 일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강희제를 태상황으로 물러나게 하고 윤잉을 황제로 등극시키려는 음모가 발각되어, 강희제는 진노하여 황태자 윤잉을 완전히 폐위하고 서인으로 삼으라는 엄명을 내렸다. 이로 인해 강희제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중풍에 걸려 오른 쪽이 마비되어 왼손으로 수결해야만 했다. 이 사건의 폐단을 계기로 청나라는 멸망할 때까지 죽은 황자를 황태자로 추서(追敍)만 하였을 뿐, 생전에 어느 황자도 황태자로 지명 받지 못했다. 강희제는 얼마 뒤 전위조서(傳位詔書)를 건청궁(乾清宮)안에 있는 ‘정대광명(正大光明)’ 편액 뒤에 보관토록 하고 자신이 봉어한 뒤에 열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저위비건법(儲位秘建法)이다. 이로 인해 형제들 간의 후계자 다툼이 발생하였다. 황1자 윤제(允禔), 황3자 윤지(允祉), 황4자 윤진(胤禛), 황7자 윤우(允祐), 황8자 윤사(允禩), 황9자 윤당(允禳), 황10자 윤아(允禎), 황12자 윤도(允禔), 황13자 윤상(胤祥), 황14자 윤제(允禵)들이 여러 파로 나누어져 후계자 다툼을 치열하게 벌였다. 35명의 황자들 중에 일부는 요절했고, 일부는 어리고, 그중에서 철이 들고 성인이 된 황자는 앞에서 언급한 12명밖에 없었다.

1722년(강희 61년)에 강희제가 붕어하자 그해 12월 27일에 황4자 옹친왕 윤진이 황위 후계자로 낙점을 받아 청나라 제5대 황제로 등극하였다. 연호를 옹정(雍正: 조화로움 속의 올바른)으로 정했다. 이때 옹정제는 45세로 황제 등극에는 늦은 나이였지만 재위 13년 동안 자신의 정치 역량을 한껏 발휘하였다.

공식 기록인 《청사고》(淸史稿) 〈성조인황제실록〉에 따르면 1722년(강희 61년) 12월 20일 강희제는 성친왕 윤지, 윤우, 윤사, 윤당, 윤아, 윤도, 윤상 등 7명의 황자들과 대신들을 불러 모았고 후계자로 황4자 윤진을 지명한 후 붕어하였다. 당시 강희제의 전위조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황4자 옹친왕 윤진은 인품이 귀중하고 사려가 깊으니 짐이 생각하건대 필히 대통을 이을 자격을 갖추었다. 고로 짐의 뒤를 이어 즉시 황제의 자리를 잇도록 하고 예법에 따라 상복을 입다가 27일에 평복으로 갈아입고 새 황제의 즉위를 만천하에 알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알게 하라.”**

당시 후계자로 황4자 옹친왕 윤진과 황14자 순군왕 윤제 중 고심하던 강희제는 성격이 치밀하고 신중하여 황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재목이라 여기고 윤진에게 넘긴 것이다. 그러나 야사에서는 그 당시 강희제의 침전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던 융과다(윤진의 심복)는 윤진을 황위에 올리기 위해 강희제의 유조를 변조하고 강희제를 시해했다는 가설이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 또는 윤진이 직접 강희제를 죽였다고 하나 이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런데 2013년 9월 4일 중국의 뉴스 포털사이트 텡쉰왕(騰訊網)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遼寧)성 문서보관소는 9월 2일 역대 처음으로 강희제의 유조를 공개했는데 이 유조는 만주어와 몽골어로도 쓰여 있어 한자 몇 글자 고치는 것으로는 내용을 바꾸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한다. 이로써 옹정제는 무려 291년 만에 황위 찬탈의 혐의를 벗었다.

옹정제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에게 반대한 형제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형제들이 자신을 너무나 많이 음해한 것을 잘 아는 옹정제는 자신의 정책 실행과 그 안정을 위해 형제들을 제거하려 하였다. 일단 옹정제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의 돌림자인 ‘윤’(胤)을 역시 발음이 같은 ‘윤’(允)자로 고치게 하였다. 왜냐하면 중국 고유의 오랜 관습에 의하면 천자의 이름은 절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 이를 입 밖에 내는 것도 문자로 쓰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젠 신하가 된 황자들이 옹정제의 이름자로 쓰는 것은 허용될 수 없었다. 그 후 옹정제는 어머니인 덕비 오아씨를 황태후로 존송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던 윤사, 윤당, 윤아 등을 각각 염친왕(廉親王), 혁군왕(奕郡王), 돈군왕(敦郡王)에 봉하여 안심시킨 뒤, 윤사를 총리왕대신(總理王大臣)으로 임명하여 같이 정사를 의논하게 했다. 특히 옹정제는 윤사를 자주 불러 정사를 의논하는 척 했으나 사실은 윤사와 그 파당간의 연락하는 시간을 줄여서 함부로 모의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윤사가 여전히 자신의 파당과 음모를 꾸미자 옹정제는 형제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옹정제의 형제 숙청에 의해 황13자 윤상과 황17자 윤례를 제외한 거의 모든 형제들은 홀대를 받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황13자였던 윤상은 이친왕(怡親王)으로 봉해져 총리왕 대신으로 옹정제와 정사도 논의하는 등 승승장구하였고 1730년(옹정 8년) 병사했을 때에도 옹정제가 매우 슬퍼했을 만큼 윤상에게 큰 신뢰를 가졌다. 가장 강력한 황위계승 경쟁자인 동북아우 황14자 윤제는 옹정제의 심복 연갱요의 감시를 받아 군권을 강제로 회수당하고 북경으로 돌아와 모든 작위를 빼앗기고 강희제의 능침인 경릉(景陵)으로 내쫓겨 능지기로 살았고 황8자 염친왕 윤사와 황9자 윤당은 옹정제에게 사사건건 반대하였던 것을 계기로 제일 불행한 말년을 보냈다. 윤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옹정제의 제위 계승에 대해 불만이 많았으며 설상가상으로 옹정제의 3남 홍시(弘時)를 황제로 세우려 하였으나 옹정제에게 덜미를 잡힌 윤사는 태묘에서 관직을 삭탈당하고 폐서인된 채 특별 독방에 하옥되었다.

옹정제는 아버지인 강희제가 세운 청나라의 전성기를 더욱 발전시키고

안정시켜 명군으로 칭송받았다. 아버지의 정책을 잘 이어갔으며 조세 감면정책을 실시해 백성들의 노고를 덜어주었고, 강희제 말기부터 시작되어 온 재정 개혁을 단행하여 1721년(강희 60년) 700만 냥밖에 없던 국고가 1730년(옹정 8년)에는 3천만 냥, 그 후 말년인 1735년(옹정 13년), 국고에는 은자 6천만 냥이나 있었다고 한다. 옹정제의 치세 동안 원정이 있었고 1년 동안의 군비가 100만 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옹정제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내치로 세수가 금방 걷히게 되어 재정위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강희제가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한 지정은제도 옹정제의 치세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개인적으로 옹정제는 밤 12시에 자서 새벽 4시까지밖에 자지 않고 이외의 시간은 모두 정무에 할애하는 등 정치에 매우 의욕적인 황제였다. 또한, 지방 총독과 순무 등 지방 관리들의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 의견을 다시 보냈는데, 이때 옹정제는 황제만이 쓸 수 있던 붉은 먹으로 쓴 글씨, 즉 주필(朱筆)로 답장을 보냈고 그 답장을 **주비유지(朱批諭旨)**라 부른다. 이 주비유지는 보내지자마자 바로 시행되었고 이것은 옹정제와 말단인 신하들까지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옹정제는 공식적인 보고 경로와 독자적인 보고 경로를 함께 활용하여 양쪽이 맞지 않으면 추궁하는 식으로 지방관들을 문책하며 징계하였으며, 이 주비유지를 나중에 모아 책으로 묶어 **옹정주비유지(雍正朱批諭旨)**로 부르고 지방 관리의 참고서로 삼게 하였다. 또한 자신과 같이 검소한 사람을 좋아하던 옹정제는 자신에게 충성스럽고 검소한 신하들에게 양렴전(良廉錢)을 지급하여 가난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였다.

옹정제는 아버지 강희제의 후계자 선출 문제 실패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능력이 뛰어난 황자의 이름을 각기 건청궁 ‘정대광명’(正大光明) 편액 안에 봉인된 상자와 자신의 품에 집어넣고 자신이 죽은 후에 그 이름이 맞으면 그 황자를 즉시 다음 황위에 올리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유명한 저위비건법(儲位秘建法)이다. 본래 강희제부터 시작되어 온 것을 옹정제는 봉인된 교지와 내무부에 역시 봉인되어 있는 밀지가 모두 맞아야 황위를 승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었다. 이

때 이미 옹정제는 자신의 후계자로 제4황자 홍력(弘曆; 나중에 건륭제)을 낙점하고 홍력을 보친왕(寶親王)으로 삼아 국사를 처리하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옹정제의 치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3년간의 짧은 치세였으나 그의 정책으로 청 제국은 강희제 말기 약간 부실하던 황권을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특히 황실의 안정과 강력한 황권을 수립하기 위해 과거 황위를 놓고 다툰 형제들을 죽이거나 감금하는 등 철저히 배제시켜놓고 대신들과 정사를 의논하였다. 그의 정책으로 국가는 더욱 안정이 되었고 국가의 내실이 역시 튼튼해졌다. 또한 재정 개혁을 통해 기강 단속과 재정 정비를 일거에 실행하는 정책을 추진함과 더불어 조세 제도 자체에도 개혁을 단행했다. 또한 군기처(軍機處)를 세우고 황권을 더욱 강화, 재상들의 정치 발언권을 규제하였고 재상들의 정치 참여를 제제한 대신 자신에겐 재상들이 본래 결재하던 문서의 양까지 합하여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문서를 검토, 이에 일일이 답하였고 하급의 지방관이라도 자신에게 상소를 올리면 이 역시 받아주어 주필로 써서 보내주어서 명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재상들과 대신들을 군기대신으로 삼고 같이 정사를 의논하였으나 이미 그들의 권세는 명나라 때의 대신들인 내각대학사(內閣大學士)에 비하여 크게 축소되어 있었기에 신권은 크게 위축되었다. 강희제 때 일어난 문자의 옥을 다시 대대적으로 감행하여 청 제국의 정통성에 반대하는 학자들과 한쪽을 엄정히 다스렸으며 지방관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부정부패를 크게 줄였다. 강희제가 죽은 직후 군사들을 동원하여 황제에 올랐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황위를 찬탈한 권력 지향적 독재자라는 평판도 있지만, 지칠 줄 모르고 늦은 밤까지 정치에 몰두한 훌륭한 군주라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

홍력(弘曆; 나중에 건륭제)은 어릴 때부터 제왕이 지녀야 할 자질이 보여 조부 강희제와 부황 옹정제에게 인정을 받았다. 1735년(옹정 13년) 10월, 부황 옹정제의 몸이 나빠지자 보친왕 홍력은 이복동생 화친왕 흥주

(和親王 弘晝)와 함께 옹정제를 간병하였다. 그러나 동년인 1735년(옹정 13년) 10월 8일에 청나라의 제5대 황제인 부황 옹정제는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어 58세를 일기로 북경의 원명원에서 붕어하였다. 대학사 장정옥과 악이태(鄂爾泰), 그리고 홍력의 숙부인 장친왕 윤록(莊親王 允祿), 과친왕 윤례(果親王 允禮) 등이 고명대신이 되어 옹정제의 유조를 건청궁 정대광명 편액에서 꺼낸 뒤 유조를 읽었다. 유조에는 황4자 홍력을 황태자로 책봉하여 황제로 즉위시키라는 내용이였다.

“황4자 보친왕 홍력은 성품이 인자하고 효성과 우애가 깊어 조부이신 성조인황제 폐하께서 특별히 총애하여 궁중에서 기르셨다. 홍력은 친왕이 된 후에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오랫동안 준비하여 정사에 능숙하며 식견이 깊으니 가히 대사를 맡을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짐의 뒤를 이어 황위를 이을 자격을 갖추었다.”

이 유조에 따라, 홍력은 황태자로서 책봉의례를 받은 후, 곧 황위에 오르니 이때 그의 나이 25세였으며 이가 제6대 황제인 고종 건륭순황제(高宗 乾隆純皇帝)이다. 연호를 ‘건륭’(乾隆; 하늘의 영광)이라 정하였다. 과거 조부인 강희제나 부황인 옹정제의 즉위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데에 비하여 이미 황자 시절에 경쟁자가 없어진 건륭제의 즉위 과정은 매우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 즉위하자 건륭제는 먼저 아버지 옹정제가 연금하거나 귀양을 보낸 자신의 숙부들을 사면하였다. 특히 옹정제가 황위에 오르기 전 경쟁자로 불리던 순군왕 윤제(恂郡王 允禩)는 건륭제의 배려로 풀려날 수 있었다. 그 후 건륭제는 아버지가 재위기간 내내 추진하던 종친들을 정치 일면에서 배제시키는 정책에 박차를 가했다. 강희제나 옹정제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황자들과 일부 세력이 있는 방계 황족들은 군이나 육부를 통솔하였으나 그 당시의 골육상쟁을 잘 알고 있던 건륭제는 황족들을 대부분 군과 육부, 군기처에서 배제시켰고 그의 아우들마저도 정치적 발언을 규제하여 공사를 구별하였다. 혈기왕성한 청년의



건륭제는 인시(寅時, 새벽 4시)에 일어나 조회에서 대신들이 올린 각지에 서의 보고를 받고 이를 수결하였다.

건륭제는 개인적인 여가를 보낼 때나 중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심신을 달래러 1751년(건륭 16년), 1757년(건륭 22년), 1762년(건륭 27년), 1765년(건륭 30년), 1780년(건륭 45년), 1784년(건륭 49년) 등 대대적인 강남 순행, 즉 남순(南巡)을 모두 여섯 번 단행하였다. 남순 이외에 사천성, 청해성 인근을 돌아보는 서순(西巡)을 4번 하였고 산동성, 호북성 인근을 도는 동순(東巡)도 5번이나 진행하며 각지의 교류를 트게 하였다.

1795년(건륭 60년) 말 건륭제는 스스로 황위를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즉위할 때 한 약속이기도 하였는데 1735년(옹정 13년) 당시 즉위할 때 쓴 칙서에서는 즉위 60년째에 황위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짐의 조부(강희제)께서는 61년간 재위하셨으나 짐은 감히 그 기록을 깰 수 없도다. 짐이 그 정도로 오래 살아있으면 건륭 60년째 되는 해, 즉 짐의 나이 85세 되는 해에 황자에게 황위를 넘기고 물러나겠다.”

본래 건륭제는 즉위할 때 첫 번째 부인 효현순황후 소생의 차남 영련(永璉)을 후계자로 염두에 두었으나 영련이 1738년(건륭 3년)에 죽은 이후로는 건저(建儲)를 오랫동안 보류하였다. 그 후 건륭제는 한족 출신 후궁인 영의황귀비를 사랑하여 그 아들인 15남 영염(永瑔)을 1773년(건륭 38년) 은밀히 후계자로 세우고 영염의 이름이 담긴 함을 건청궁 정대광명 편액 뒤에 넣어놓았다. 1789년(건륭 54년) 건륭제는 영염을 가친왕(嘉親王)에 봉한 뒤 정무와 군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1795년(건륭 60년) 9월 4일에 편액에 넣어놓은 유조를 꺼내어 영염을 황태자로 봉하였다. 그리고 1795년(건륭 60년) 음력 12월 30일, 즉 양력으로는 1796년 2월 9일 건륭제는 황위에서 내려왔고 그 다음 날인 1796년 음력 1월 1일(양력 1796년 2월 10일)에 자금성 태화전에서 열린 양위식에서 전위조서

를 내리고 황위를 황태자 영염에게 넘겨주니, 이가 바로 가경제(嘉慶帝; 1760~1820)이다.

“짐은 감히 조부(강희제)의 재위기간을 뛰어 넘을 수 없는 바, 이에 조칙을 반포하여 병진년(1796년)을 가경 원년으로 정하노라. 황태자 영염을 병진년 정월 초하룻날 황제에 즉위토록 할 것이며 짐이 직접 태화전에 나가 황상에게 옥새를 건네는 그 순간부터 짐을 태상황제로 칭하도록 하라. 그러나 아직 중요한 정무와 군무, 인사권은 짐이 직접 처리할 것이다.”

조서에서도 언급했듯 건륭제는 태상황제로 물러남에도 여전히 군국대사를 처리하는 등 막강한 위세를 자랑하였다. 비록 가경제 역시 친정을 할 수 있었으나 중요한 일은 반드시 태상황제에게 물어보고 실행하였다. 이렇게 건륭제는 중국 역사상 태상황제 중 유일하게 금상(今上) 황제보다 더 많은 실권과 책임을 가졌다. 10차례에 걸친 정복 사업을 펼쳐 준가르와 위구르를 복속시키고 티베트, 버마, 베트남, 네팔까지 진출하는 등 현재 중국 영토의 틀을 만들었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내놓고 여기에 사치, 반란, 서방과의 부실한 외교, 그리고 희대의 탐관오리로 평가받는 노후루 허선(鈕祜祿 和珅; 1750~1799)을 20여년간 총애하여 말년엔 매관매직과 부정부패가 빈번히 일어나고 국고가 비어 결국 청 제국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1796년(건륭 60년) 말, 자신은 감히 조부인 강희제의 재위 기간을 넘을 수 없다며 재위 60년째에 태상황제로 물러났지만, 막후에서 정책 최고 결정권을 행사하여 여전히 실권을 쥐고 있었다. 재위기간 60년에 태상황제로서 실권을 장악한 4년까지 합치면 건륭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실권을 장악한 황제였다. 스스로 십전노인(十全老人, 열 번의 원정을 모두 승리로 이끈 노인)이라 칭하고 그렇게 불리기를 좋아하였으며, 중국 최후의 태평성세인 강건성세(康乾盛世)의 마지막을 장식한 황제이다. 중국의 역대 황제 중 가장 장수한 황제이며 중국 최후의 태상황제로 그의 생모와 신분, 즉 한족의 피

가 흐르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중국의 역대 황제 중 가장 민간의 전설이 많은 황제이기도 하다. 문화 사업으로는 옹정제 때 마카오로 추방된 로마가톨릭교회 산하 예수회 선교사들을 다시 불러들여 북경에 서양식 건물을 짓도록 허락한 것과 특히 예수회 수도사인 주세페 카스틸리오네에게 서양식 궁전인 월명원을 개·보수를 감독하게 한 것이 있다. 그 자신 역시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아 시와 서화를 즐겼고 각지의 시인과 화가들을 독려하였다. 특히 10년의 세월을 들여 고금의 도서를 수집하여 중국 역사상 최대의 편찬 사업인 《사고전서》를 편찬함으로써 고서적들을 많이 발굴케 하였으나 문자의 옥도 단행하여 청 제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책들은 모두 금서로 만들었다.

**이젠 여러 관점에서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의 통치에 관해 평가와 검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희제는 어릴 적부터 영특하였고 열심히 학문에 열중하고 체력을 단련하며 황제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비록 어린 나이인 7세 때 황제로 등극했지만 14세 때에 친정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조모와 4명의 보정대신들의 도움으로 무난하게 나라를 다스렸다. 그는 먼저 삼번의 난을 진압하고 주변의 몽고족, 러시아군, 티베트의 국지적인 침략을 방어하며 청나라를 확고하게 안정시켰다. 애민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편익과 민생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여러 자식들을 두어 말년에는 황위 책봉 문제로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아 힘든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많은 후궁을 두어 여자 문제와 많은 아들들의 후계자 다툼으로 심적인 고통이 심했다. 다행스럽게도 문무를 겸비하고 통치력을 검증받은 황4자 윤진에게 저위비건법(儲位秘建法)으로 황위를 넘겨주었다. 생전에 틈나는 대로 사냥을 즐기며 강건한 체력을 키워 힘든 집무를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61년의 긴 재위기간 강력한 국방, 민생, 문화발전, 치수사업 등의 성공적인 정책으로 청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만들었다. 또한 검소한 생활을 하며 관리들을 엄중하게 관리하여 부정부패가 거의 없었다. 6번의 남순, 4번의

서순, 2번의 동순을 통해 백성들과 가까이 소통하며 백성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현장의 실태를 보며 정책을 개선해 나갔다. 여러 관점에서 그의 통치술을 평가하면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가의 안위에 신경을 써서 청나라를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으며, 백성에 대한 **애민(愛民) 정신**으로 나라를 훌륭하게 잘 다스려, 재위기간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였으며, 뛰어난 아들(옹정제)과 손자(건륭제)에게 황위를 넘겨준 것도 큰 업적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본인은 강희제를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황제로 평가한다.**

옹정제는 비록 늦은 나이인 45세에 황제로 등극했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이미 정치가와 군인으로서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사실을 검증받았다. 또한 부친인 강희제의 훌륭한 통치를 바라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통치 철학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즉위하자마자 오래 전부터 구상하고 있던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하루에 4시간 밖에 자지 않고 집무실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서 건강을 해친 것이 아쉽다. 형제들 간에 황제 계승 다툼으로 여러 형제들과 여러 신하들을 죽여 심적으로 고통이 심했을 것이다. 이러한 고통과 힘든 격무로 인해 더욱더 건강이 악화되었다래 **그**서 그의 재위 기간은 13년 밖에 되지 않았다. 재위기간이 25년 정도 되었으면 청나라가 더욱더 내실이 튼튼한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검소한 생활을 하였으며 부패한 관리들을 징계하여 부정부패가 적었다. 남순, 서순, 동순을 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국고의 재원을 풍부하게 했다.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형제, 신하들을 죽이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독재 정치를 감행하였다. 옹정제는 부황 강희제의 통치에서 부족한 면을 분석해서 개선하려고 했다. 옹정제는 재위기간 직접 정벌에 나선 적이 없고 대륙순행도 거의 안하고 오로지 집무실에서 밤새워 가며 상주문들을 결재하며 국정에 매달렸다. 이로 인해 아버지와 아들만큼의 건강을 누리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는**

## 부친인 강희제보다는 못하지만 훌륭한 명군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건륭제는 재임기간의 초기와 중기에는 조부인 강희제의 통치술을 본받아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면서 청나라를 군사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만들었다. 25세 혈기왕성한 나이에 즉위한 건륭은 부황의 건강을 해치는 근면한 집무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조부 강희제의 호방한 통치술에 매력을 느껴 강희제의 통치술을 모방하며 국정을 수행했다. 그의 공적으로는 조세 면제정책, 신장(新疆, Uyghur)과 서장(西藏, Tibet)의 병합, 사고전서 등의 서적 편찬, 석재 방조제 축제, 원명원 등의 황실 원림 보수와 중건, 다민족 국가의 통일 등이다. 그는 조상의 가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문치와 무공 모두 대성과를 이룬 명군이다. 특히 생전에 황위선양의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중요하다. 6차례의 남순(南巡)으로 상당한 국고를 낭비하고, 방문지역의 백성들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긴 것은 그의 큰 실정 중의 하나이다. 조부 강희제가 백성과의 소통과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해 했던 남순과는 완전히 달랐다. 건륭제는 남순 중에는 자주 사치스런 연회를 열게 하고 남경, 소주, 항주 등지의 미인들과 어울리며 사치와 향락에 빠지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방탕한 행동과 부정부패의 국정농단의 방치로 인해 두 황후와 자주 다투기도 했다. 젊었을 때는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국정을 성공적으로 다스렸지만, 늙어서는 정치에 싫증을 느껴 사치와 향락에 빠져 국정을 소홀히 하여 많은 고위 관리들의 국정농단의 발생을 막지 못하고 방치하였다. 건륭제 말기에 유럽과 북미에서 일어난 산업혁명(1760~1820), 미국 독립전쟁(1775~1783)과 건국(1776), 프랑스 대혁명(1789~1799), 나폴레옹(생몰 1769~1821)의 등장 등의 엄청난 대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건륭제의 오만과 유럽 및 북미에서의 큰 변화에 대한 정보 부족과 국정농단의 방치로 19세기에 와서는 청나라의 멸망의 길로 빠져 들기 시작했다. 실제로 19세기에 일어난 백련교도의 난, 태평천국의 난, 두 차례의 아편전쟁 패배, 청일전쟁의 패배와 의화단 사건으로 청나라는 1912년에 멸망했다.

1636년(인조 14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으로 조선왕 인조는 삼전도(三田渡)에서 청태종 홍타이지(송덕제) 앞에서 굴욕적으로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한 후 청나라의 속국이 되었다. 156년이 지난 1792년(건륭 57년)에 영국의 사신인 매카트니(George Macartney: 1737~1806) 경(卿)이 건륭제와 대면할 때 청나라 측에서 삼배구고두례를 하라고 하자 “서양에선 신에게 말고는 왕에게도 무릎 하나를 꿇는 게 전부다” 라거나 러시아의 카자크 기병들은 “차르(czar)의 앞에서도 말에서 내리지 않는다” 등으로 삼배구고두례를 거절하려 했지만, 청나라는 이를 무시하고 삼배구고두례를 강요하기도 했다. 서양측이 괜히 삼배구고두례만 예를 잡아서 시비건 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온 예법의 차이 때문에 흔히 발생했던 오해로서, 매카트니가 건륭제와 만난 이후, 이런 삼배구고두례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을 잘 알고 있던 네덜란드 사신들은 건륭제한테 기꺼이 삼배구고두례를 했고 심지어 건륭제가 주는 포도송이가 담긴 은쟁반을 향해서도 머리를 조아렸다. 이는 네덜란드인들이 비굴해서가 아니라 실용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인데, 건륭제 앞에서 절을 해서라도 청나라와 무역 관계를 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아부를 했는데도 정작 청나라는 네덜란드가 원하는 대로 무역 관계는 끝내 열어주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관점에서 **본인은 건륭제를 집권 40년까지는 성공적인 국정을 수행한 명군으로 평가하고, 그 후 20여 년 동안은 국정 농단을 방치한 실패한 통치자라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본인은 강희제와 옹정제는 국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명군으로 평가한다.**

소수민족인 만주족 황제인 강희제, 옹정제와 강희제가 90 퍼센트 이상의 한족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중국 역사상 엄청난 사건이다. 한조(漢祖), 당조(唐祖), 송조(宋祖), 명조(明祖)의 한족 황제들 중에서도 한무제, 당태종, 당현종과 명 영락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무능한 황제들이었다. 한무제, 당태종, 당현종과 명 영락제의 제대로 된 재위기간을 모두 합쳐도 100년이 되지 않는다. 한무제, 당현종, 영

락제의 집권 후반부는 국정이 문란해 졌다. 한조 시대는 흉노족의 침략에 시달렸고, 당조 시대에는 안록산의 난을 포함해 여러 반란으로 전 국토가 도탄에 빠졌으며, 송조 시대에는 거란족, 여진족, 몽고족의 침략으로 굴욕적인 세월을 보내야만 했고, 명조 시대에는 간신과 환관들의 국정 농단으로 나라가 초토화되어 후금에 의해 명조는 멸망하였다. 강희제는 비록 소수민족인 만주족이지만 **한족과 여러 소수민족을 진정한 백성들로 존중하며 애민정신을 가지고 다스렸기 때문에** 청나라는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다. 아들 옹정제와 손자 건륭제가 강희제의 대업을 이어 받은 덕택에 강옹건 성세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륭제가 늙었을 때는 오직 혈통과 만주족의 자부심만이 있고, 건륭 자신이 더 이상 만주족 8기군의 강인함과 용맹성이 남아있지 않은 오만한 늙은 군주였다는 것이 미래의 청나라에게는 큰 비극이었다.

최근에 시진핑이 당 태종, 당 현종, 강희제, 건륭제 시대를 떠올리며 중국의 부강한 태평성대를 꿈꾸고 있다. 지금의 시대는 예전의 황제 국가의 시대와 다르다. 예전에는 언론의 자유가 억압을 받았지만, 명군들은 애민정신에 입각해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의 편익과 민생경제를 위해 노력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의 일부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하고, 중국 내에서는 인권보장이 되지 않고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이 중국의 큰 취약점이다. 시진핑을 포함해 여러 고위 관료들이 애민정신을 가지고 통치하며, 중국 정부 정책과 체제를 개선해야지만 멸망의 길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멀지 않는 역사에서 배우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마크 엘리엇 지음, **건륭제 : 하늘의 아들 현세의 인간**, 천지인, 2011 (옮긴이: 양휘웅)
- [2] 미야자키 이치사다 (宮崎市定) 지음, **옹정제**, 도서출판 이산, 2001 (옮긴이: 차혜원).

- [3] 옌 총나옌 지음, **청나라, 제국의 황제들**, 도서출판 신수아, 2014 (옮긴이: 장성철).
- [4] 이언호 편역, **정관정요(貞觀政要)**, 도서출판 큰방, 2002.
- [5] 장자오청, 왕리건 지음, **강희제 평전**, 민음사, 2010 (옮긴이: 이은자). [원제: 康熙傳]
- [6] <https://ko.wikipedia.org/wiki/강희제>
- [7] <https://ko.wikipedia.org/wiki/옹정제>
- [8] <https://ko.wikipedia.org/wiki/건륭제>
- [9] [https://en.wikipedia.org/wiki/Kangxi\\_Emperor](https://en.wikipedia.org/wiki/Kangxi_Emperor)
- [10] [https://en.wikipedia.org/wiki/Yongzheng\\_Emperor](https://en.wikipedia.org/wiki/Yongzheng_Emperor)
- [11] [https://en.wikipedia.org/wiki/Qianlong\\_Emperor](https://en.wikipedia.org/wiki/Qianlong_Emperor)
- [12] [https://en.wikipedia.org/wiki/George\\_Macartney,\\_1st\\_Earl\\_Macartney](https://en.wikipedia.org/wiki/George_Macartney,_1st_Earl_Macartney)
- [13] 【康熙大帝】北疆拒俄 永成龙兴之地 [大纪元文化小组], 更新: 2020-07-05 8:49 PM
- [14] 【康熙大帝】靳辅治河与康熙南巡 [大纪元文化小组], 更新: 2020-07-09 7:41 PM

### 양재현 고등연구소 (YIAS)

우편번호 : 07997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293

현대41타워 1905호

email : jhyang8357@gmail.com